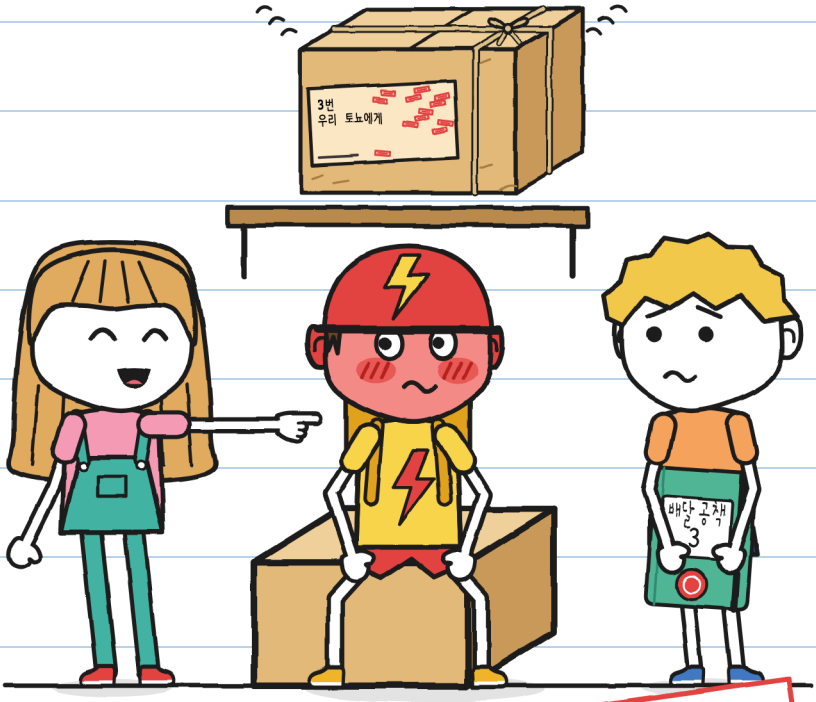
불가능 배달 · 3
반송 부탁해요

LinguAula



(구니의)

사이즈 XS
처음 읽기 · 5+

불가능 배달 · 3
반송 부탁해요

글과 그림: LinguAula

사이즈 XS · 처음 읽기 · 5+

한국어판: LinguAula

초판: 2026

© 2026 LinguAula · info@linguaula.com

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.

시리즈 세 번째 책.



LinguAula

linguaula.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

아무도 다치지 않았다. 배달개진 사람은 있다. —J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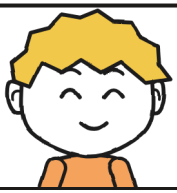
내가 먼저 읽는다. —J.

이걸 찾았다면 돌려줘. 부탁이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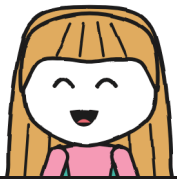
이야기 속에서만

진짜 자전거는 76쪽. —J.

등장인물



구니는 이것저것 그린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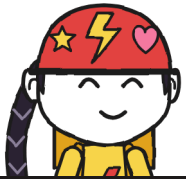
훌리타는 초록색으로 쓴다.



토쇼는 얼굴이 빨개진다.



마라는 마녀다.



조이는 별명을 붙인다.



브루노는 한번 펑크가 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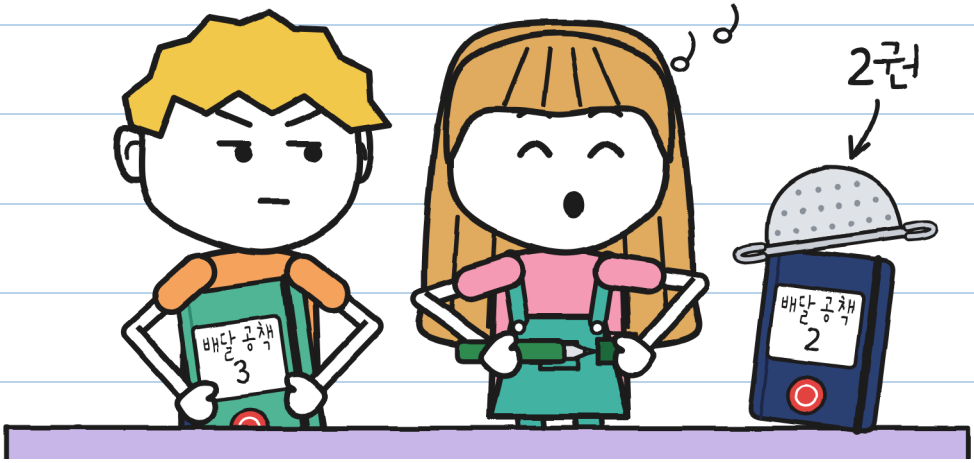
3번 택배는 소리가 난다.



R.은 이름이 없다.

배달 공책 3
주인 : 구니

비밀! 내가 먼저 읽어. -J.



공책 2권은 다 썼다. 이건
초록색이다. 훌리타가 먼저 썼다.

널 도우려고. 천만에. -J.

나는 도와 달라고 하지 않았다.

제1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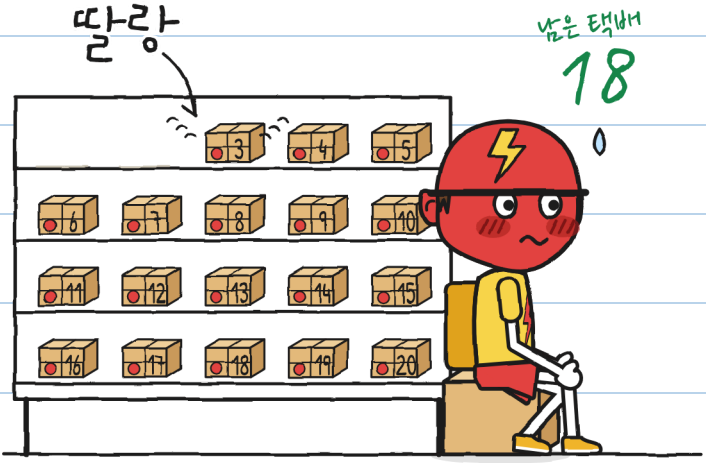
딸랑

마라아줌마는 아무도 배달

못 한 택배를 모아 둔다.

폭풍이 친 날 밤, 택배 하나가 소리를 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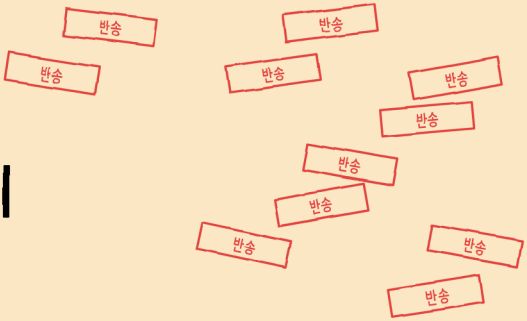
딸랑.



3번 택배였다. 토뇨의 얼굴이 빨개졌다.

서명이 없으면 택배는 날아서 돌아간다.
받는 사람의 서명만 인정된다.

3번
우리 토뇨에게



보내는 사람: **R.**

훌리타가 읽었다. "우리 토..."
훌리타가 입을 다물었다. 토뇨의
얼굴이 빨개지고 있었다.

반 단어만 읽었다. —J.

토뇨는 한 군데씩 빨개진다.

토뇨의 빨강계



"그 택배는 기다려도 돼요." 토뇨가 말했다.

"번개배송은 안 급해요."

번개배송이 기다리는 건 처음이었다.

그날 밤: 4. 초록색뿐. —J.

"오늘은 아무것도 안 열어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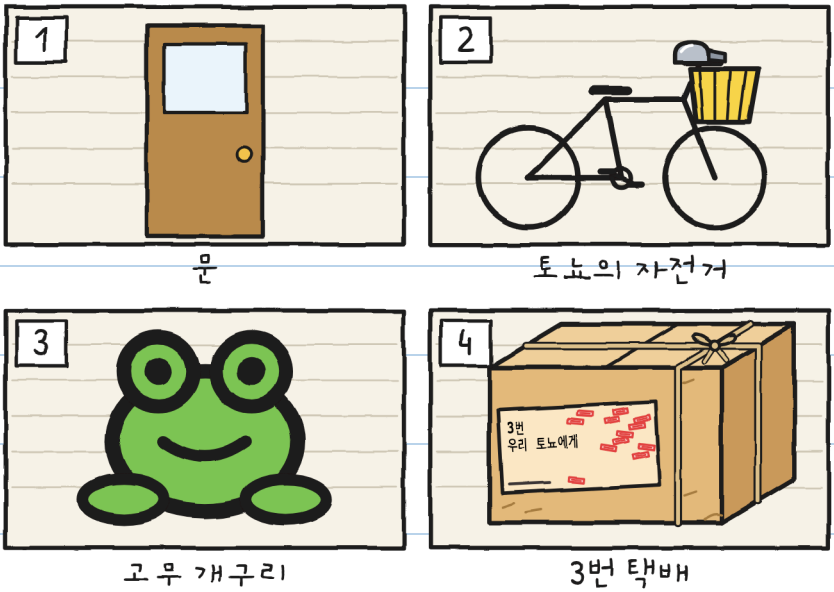
마라 아줌마가 말했다.

또 소리가 났다. 딸랑!

"문이 그랬어!" 훌리타가 말했다.

뭔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목록을 만든다.

딸랑 소리의 용의자



개구리는 무죄야. —J.

인도에서 소리를 시험했다.

문, 벨, 개구리. 끼이익, 따르릉!, 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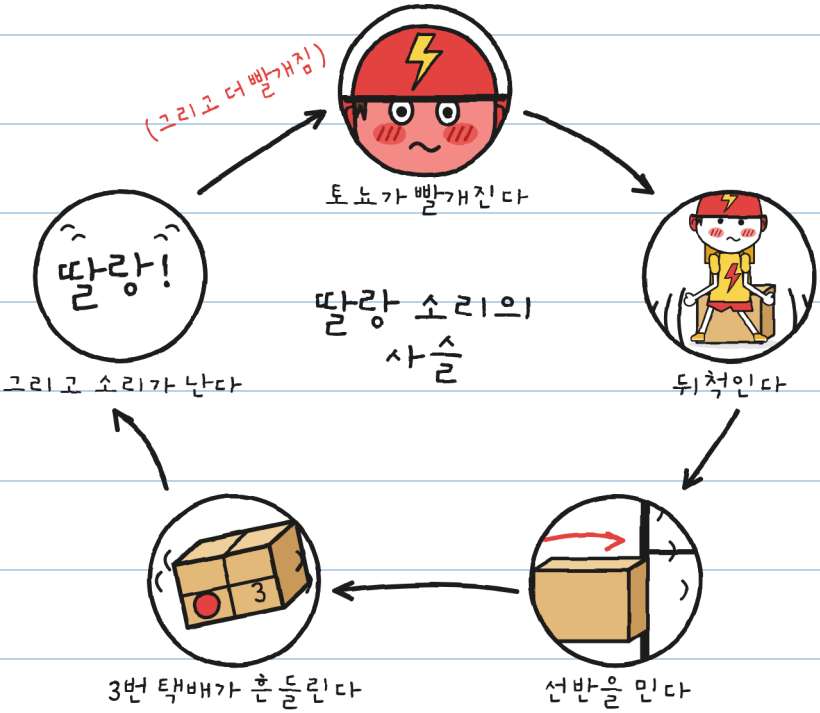


어느 것도 그런 소리가

아니었다. 토요가 움직였다.

딸랑.

토뇨의 상자가 선반에 닿아 있었다.



마법이 아니었다. 토뇨였다.

택배 안에서 뭔가가 소리를 낸다.

나처럼 —J.

토뇨는 가만히 있기로

했다. 이만큼 버텼다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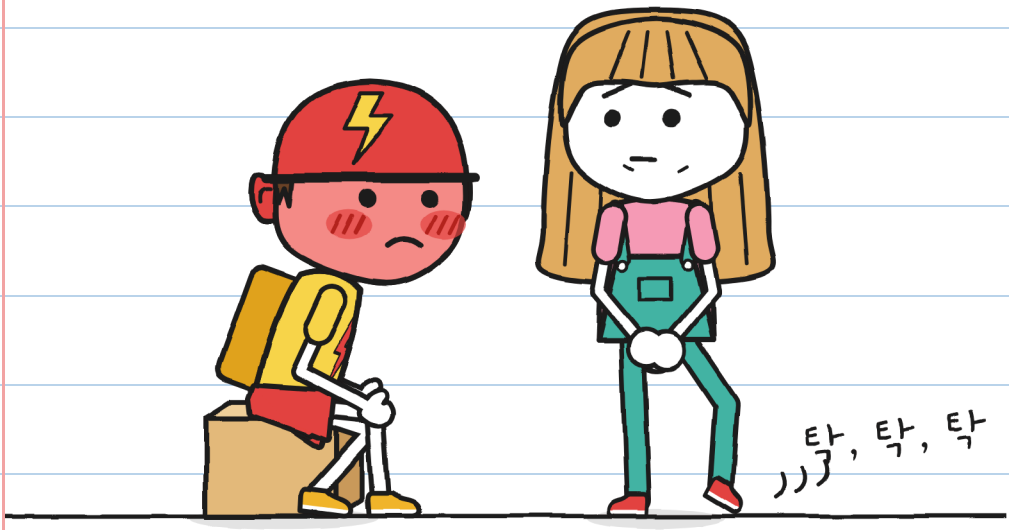
질문은 선반을 밀지 않아. —J.

이번 건 밀었다.

"나였어." 토쇼가 말했다. "어릴 때."

훌리타는 묻고 싶은 게

많았다. 입을 다물었다.



"더 안 물어볼게." 훌리타가 말했다.

발을 달달 떨었다.

못한 질문: 아홉 개. —J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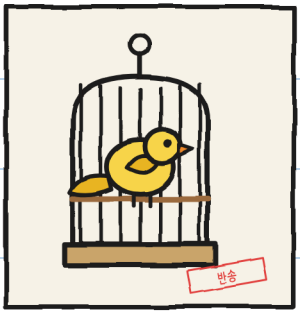
"왜 한 번도 전해 주지

못했어요?" 내가 물었다.

"열두 번 가져갔어. 길

이름도, 번호도, 성도 없어."

마라의 우리 토뇨들



1. 카나리아 한 마리.
(안 된다.)



2. 안토니오 할아버지, 귀세.
("나도 그러고 싶구나.")



3. 운하의 작은 배.
(손이 없다.)

"토뇨는요?" 훌리타가 물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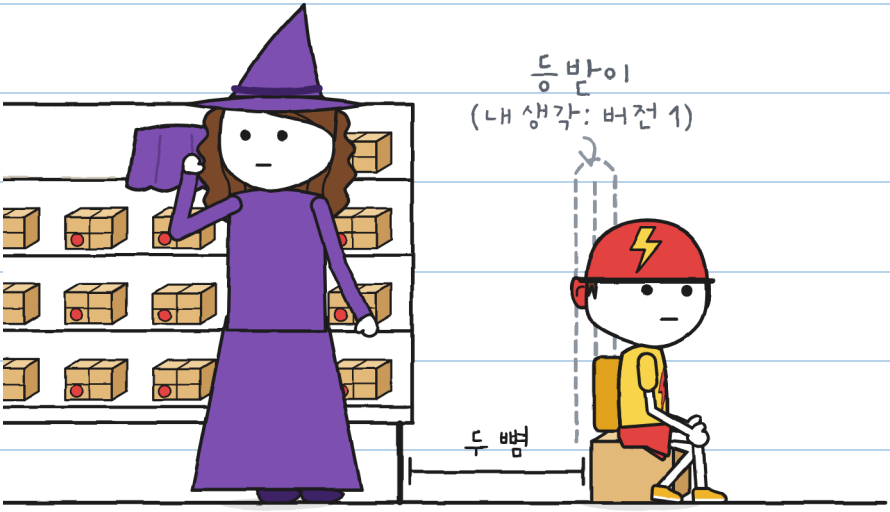
"아무도 이름을 알려 주지

않았어."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.

마라 아줌마가 3번 택배를 덮었다.

토뇨의 상자를 멀리 옮겼다.

"이제 움직여도 돼."



토뇨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었다. 토뇨는 다시 앉았다.

아무도 등받이 달라고 안 했어. —J.

"내일 올게요." 토쇼가 말했다.

"우리끼리요. 번개배송 사람은 빼고요."



택배는 토쇼에게 온 것이었다. 원할까?

토쇼를 어떻게 도울지 난 알아. —J.

그게 걱정이다.

한 이야기, 여섯 가지 사이즈

여섯 가지 사이즈, 20개 넘는 언어.

사이즈 XXS · PRE-A1
마라와 토뇨가 웃어. 빨간 자전거가 보여?

사이즈 XS · A1
마라 아줌마가 거의 웃었다. 토뇨도 같이 웃었다. 토요일 이후로 웃는 걸 못 봤다.

사이즈 S · A2
마라 아줌마가 소리를 냈다. 거의 웃음이었다. 토뇨도 웃었다. 토요일 이후로 웃는 걸 못 봤다.

사이즈 M · B1
마라 아줌마가 소리를 냈다. 웃음 같았다. 토뇨도 웃었다. 토요일 이후로 토뇨가 웃는 걸 못 봤다.

사이즈 L · B2
마라 아줌마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웃음이었을 소리를 냈다. 토뇨도 웃었다. 토요일 이후로 토뇨가 웃는 건 처음 보았다.

사이즈 XL · B2-C1
삽화 소설 · 13+
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.

같은 딸랑. —J.

가족과 교사를 위한
linguaula.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